

김종인 위원장 등 지도부 총 사퇴 쇼크... 조직쇄신 '안갯속'

국민의힘 선대위 지각변동

연일 이어지는 갈등... 지지율 ↓
선대위 지도부 일괄 사의 표명
이준석 대표 거취 표명 관심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의 주요 지도부가 윤석열 후보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해 국민의힘 선대위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3일 오전 열린 선대위의회의에서 인적 쇄신을 포함한 선대위 재편을 예고한 후 국민의힘은 총괄선대위원장,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총괄본부장, 새시대준비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일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6일 공식 출범한 국민의힘 선대위는 '자중지란'의 상태로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키며 갈등에 휩싸였다. 이준석 당 대표는 선대위 내부 '윤핵관(윤석



김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열 핵심 관계자)과의 갈등으로 선대위 내 모든 직을 내려놓고 당대표직만 유지하며 연일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윤 후보는 "빈곤층은 자유의 필요성을 모른다" 등의 발언으로 연일 설화에 휩싸였고,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는 학·경력 위조 의혹으로 직접 카메라 앞에 서서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아울러 여성운동가 출신 신지애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영입은 '극단적 페미니즘'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새로 영입된 김민전 당 공동선대위원장도 총선 부정선거 의혹 주장과 이대남 관련 발언으로 지지층의 이탈과 윤 후보의 지지율을 하락시켰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선대위 쇄신

은 선대위 내부 여섯 명의 총괄본부장 체제를 재편하는 것을 포함한 선대위 내부 구조적 쇄신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윤 후보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한국거래소 일정 이후 잡혀있던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기자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의총에서 그간 벌어진 선대위 내홍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질타하며 선대위 전면 쇄신에 대한 배경과 방향에 대해서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한달 간 선대위의 운영을 지켜 보면서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봤다"며 "지금 의원들이 '내가 바로 국민의힘이고 국민의힘이 잘못되면 내가 잘못되는 것이다'라는 느낌을 몇 사람이나 갖는지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년 대선에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대선이 끝나면 찾아오는 것이 지방선거"라며 "대선이 지선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을

테고, 그다음 총선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내가 후보에게 총괄선대위원장이 아니라 비서실장 노릇을 선거 때까지 해주겠다고 했다"며 "후보도 태도를 바꿔 우리가 해준대로 연기만 좀 해달라고 했다. 과거 여러번 대선도 경험해봤지만, 후보가 선대위에서 해주는 대로 연기만 잘할 것 같으면 선거를 승리할 수 있다고 늘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전날 윤 후보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라며 사의를 표명했으나, 거취 여부는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준석 대표 체제'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거취 표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지금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가정법으로 대화가 안 된다"라며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남겼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슈퍼대통령 시대 끝내야... 정치교체 추진"

심상정 대선후보 정치개혁 비전 발표

청와대 권력 분산·다당제 전환 추진
"정치를 내손으로" 시대상 전환"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권력이 집중된 중앙집권적 대통령제와 함께 고착화된 양당정치를 비판하며 "기득권 양당 정치가 끝자락에 와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이번 대선은 '정치' 자체를 교체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후보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개혁 비전' 발표를 통해 "슈퍼대통령의 시대를 끝내 정권교체를 넘어서는 정치교체로 나아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지금 대선은 민망할 정도로 혼탁하다. 자고 일어나면 막말과 가족검증이 연이어 쏟아진다"며 "지혜를 모으고 국가 비전을 제시해야 할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인 거대야당은 최악의 경쟁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양당 후보는 모두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사회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며 "'슈퍼대통령'이 돼서 국민들을 고난 속에서 구출할 수 있다고 말하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개혁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만, 또 다른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공허한 적대의 정치가 아닌 시민의 삶을 지키는 정치교체가 절실하다며 "'대통령을 내 손으로'에서 멈춘 민주주의를 '정치를 내 손으로'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대통령 직선제 이후 5년에 한 번 대통령을 내 손으로 직접 뽑는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완성된 것은 아니다"며 "5년에 한 번이 아닌 매 순간, 시민들이 일상의 삶에서 민주주의 정치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심 후보는 정치개혁을 위해 ▲청와대 권력 분산 ▲의회를 민주정치

중심으로 ▲시민권이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등 정치개혁 비전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먼저 청와대 권력 분산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의 실무형 스텝조직으로 축소·개편하고 그림자 내각의 형태를 띠고 있는 청와대의 수석제도를 즉각 폐지하며 국무총리 국회 추천, '남녀동수내각·세대연대내각'의 원칙을 도입해 분권을 단호히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의회의 민주정치 중심과 관련해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교섭단체제도 개선을 통해 다당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2024년 총선 이후 행정부의 법안제출권 폐지 및 예산편성권과 감사원을 의회로 이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대권이 강한 나라가 아닌 시민권이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고,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선거 피선거권 연령 제한 폐지를 비롯해 교원·공무원 및 모든 시민에게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여야, 文 대통령 신년사 두고 '설왕설래' 위기극복 의지 천명 vs 반성없는 자화자찬

임기 마지막 해를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국민께서 부여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반면, 야당은 반성 없는 '자화자찬'이란 비판을 내놨다.

박성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난 임기를 되돌아보며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는 아닌 여전히 끝나지 않은 위기를 완전히 끝내겠다는 극복의 의지를 밝히는 시간이었다"며 "국민께 드린 선도국가, 평화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완전히 회복하는데 모든 힘을 다해 소상공인들의 특별한 희생에 부합할 수 있도록 더욱 두터운 보상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야당을 설득하겠다"며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튼튼한 다리를 세우고, 나아가 문재인 정부와 함께 이뤄낸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지난 5년간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던 자화자찬, 탄 세사 인식"이 마지막 신년사까지도 반복됐다"며 "국민들은 처절한 반성문을 써야 한다고 했지만, 결국 마지막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은 허무맹랑한 소설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신년사에 나타난 문 대통령 임기에 대한 평가와 국민이 내리는 평가가 '정반대'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남은 4개월 동안의 포부 역시 현실감각 없는 '기대감 제로'의 외침 일뿐"이라며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기

술을 모두 따라 잡혀 놓고서는 무슨 '선도국가'를 이야기하며, 선진국들이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하는 마당에도 홀로 탈원전을 외치는 이 정권에게 '탄소중립 선도국'은 언감생심"이라고 말했다.

장혜영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신년사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명확했다"며 "있는 것은 자화자찬, 없는 것은 지금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공감과 위정자로서 문 대통령의 진솔한 성찰"이라고 밝혔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 세상 그 어떤 정부도 그저 빛나기만 할 수는 없다. 시민들의 삶에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기 때문"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개혁 과제들에 대한 진솔한 성찰과 앞으로의 당부를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임기말 대통령의 신년사에 기대하는 것이 지나친 욕심일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이 마지막 신년사까지 자화자찬 장광설로 일관했다고 평가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임기 내내 국민의 목소리를 한 귀로 흘리고 '소통'만을 이어간 대통령답게 마지막까지 일관적"이라며 "마지막 신년사까지도 정부 수반으로서 책임 있는 사죄 대신 정부 홍보대사를 자처하는 모습을 보여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누가 봐도 실패한 K-방역을 정권의 치적으로서 홍보하는 행위는 무지와 무책임에서 나왔다고밖에 달리 이해할 길이 없다"며 "문 대통령은 기저효과에 의한 착시현상으로 고용과 성장 등의 지표가 조금 개선된 통계를 가져다가 대단한 업적인 양 홍보했다"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박병석 "'성장' 넘어 '성숙' 사회 도약 헌신"

2022년 신년인사회 참석
"국회가 희망의 다리 놓을 것"

박병석 국회의장(사진)이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최로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2022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격차와 차별이 완화된 더불어 공동체, 화해와 평화의 한반도, '성장'을 넘어 '성숙' 사

회로의 도약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국회는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도록 더욱 힘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국회가 위기의 강을 건널 희망의 다리를 놓겠다"며 "국회는 국민과 발맞춰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자세로 국민의 내일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의장은 1일 임인년(壬寅年) 신년사를 통해서도 "하루 빨리 고통의 터널을 지나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올해 국회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민생입법을 신속히 뒷받침하겠다"며 "국민께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드리기 위해 마부작침(磨斧作針)의 각오로 헌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정익 기자



박 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